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492호

서기 2004년 9월 22일 (음력 8월 9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지켜보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참선

(491호에 이어서)

▲질문자: 희망찬 새해에 스님의 강녕(康寧)을 빌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온 모든 불자들은 자성본래불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증생들이 부처라면 어떤 까닭에 무명에 가려서 자성불을 볼 수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스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성본래불이란 근본을 말하는데, 즉 말하자면 근본 측은 움직여지지 않고 그냥 힘만 가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자체는 천차만별로 돌아갑니다. 근본에 의존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들이 그냥 곱게 가게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다소러서 한군데 놓고 가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질문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도를 닦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스님께서도 좌선이니 참선이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선의 방법으로 숨고르기라든가 좌선하는 이러한 것을 선방에서는 대단히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스님께서서는 한 번도 좌선이라든가 숨고르기에 대한 권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그런데 좌선이라는 것이 모두 마음의 도리기 때문에 좌선 아닌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따로 좌선이다 좌선이 아니다 이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좌선이다 좌선이 아니다라는 거를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참선은 영할 수가 없고 좌선도 할 수가 없고, 자기를 발견하거란 뒤 백 년, 천 년, 만 년이 가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요.

▲질문자: 그리고 스님,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을 많이 지도해 주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지혜라든가 자비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전에 의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불쌍한 중생들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아무만저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과연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이 머리 속에 남은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놓고 저희들이 시도를 해야 될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스님: 진짜로만 믿으신다면, 자기가 지금 말하고 듣고 보고 행하고 가는 그 자체를 잘 뒤집어서 자기를 볼 수 있다면, 진짜로 지혜로워야만이 자비도 나오고, 자비할 수가 있어야만이 내가 돌아서 아닌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만지는 것도 자기도, 아무만지는 걸 받는 자도 자기도, 돌아 아닌 것입니다. 그건 무슨 까닭이나 하면요, 내가 항상 얘기해드리죠. 전깃줄을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마저 쥐고 서로 연결하고 행하는 자와, 즉 말하자면 아무만저주는 자와 만져지는 자가 마음과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서로 믿고 말을 할 때는 말입니다. 믿지 않든 믿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합치면 그냥 불이 들어올 뿐이지 합했다 안 합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만지는 자비로서만 베풀고 지혜는 가르치지 않는구나. 또 경전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지 마시고

요 경전을 보되 경전이 나를 보지 않게 하고 내가 경전을 보지 않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경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전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되 보지 말라 이 소리지. 경전을 보고 또 경전이 나를 본다면 글자 풀이만 해나가는 거지 내면세계의 그 백지에 들어 있는 천차만별의 뜻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책을 보는가? 내가 보고 있잖아? 그러나 나는 그냥 봐주는 겁니까 겹손으로만 심부름 해줄 뿐이지 보는 건 주인공 네가 봐!'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말을 안 해도 자기가 보는 거죠. 그런데 겹대기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고 다만 글자 풀이로만 나가니까 이거는 경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을 보는 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없는 자기가 경 아닌 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소립니다.

▲질문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한다고 해서 '놓는다 믿는다' 하면서 저희들이 공부해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또 그 경계를 파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공부 방법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스님: 그것은 확인을 하되 확인을 함이 없이 확인을 해야 하는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주인공에서 말을 하란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마구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되는 공부라니까. 왜냐하면 속에서 보이기도 하고 또 들리기도 하고, 어떤 걸 알려주기도 하고, 남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내 마음 속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실험해보겠다는 느낌이 일어나서 실험을 해보는 거고 체험을 하는 거지 바깥으로 발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나가라는 뜻이지 이거를 그냥 묵인하고 그냥 '실험해보지도 말라, 그냥 놔버려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죠. 마음의 발전이 없어서 자기 능력을 자기가 제발할 수도 없고 얼마만큼 봤는지도 모르죠. 이걸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알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잖습니까?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 번 죽어야 하고, 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또 둘 아닌 나뭇을, 일체 만물만생의 나뭇을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실험해보려면 아무도 일지 못하게 그냥 실험해보는 거지, 어떻게 말을 바깥

으로 하고 실험을 합니까? 그리고 체험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도반들끼리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갈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 당신에게 누가 되고, 둘째는 스님들에게 누가 되고, 셋째는 부처님의 뜻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속으로 자기가 실험하고 체험하게끔 일러주고 하는 것이 도반의 도리입니다.

▲질문자: 예,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공부 잘 해보겠습니다.

▲스님: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컵에 든 물을 드시며) 요것도 소금을 조금만 더 넣으면 아주 감칠맛이 있을 텐데, 싱겁게 탔으니 싱겁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당해야 돼요. 아주 적당해야 돼!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도 적당하게 그 정도(定)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해(解)도 정(定), 계(戒)도 정, 모두가 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질문자2: 저는 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인공 임신증절에 대해서 스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속도 윤회 중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정인 태아의 단계에서 행해지는 법적으로 허용된 인공 임신증절 다섯 가지하고,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자율적

인공 임신증절이 있는데 경전에 의하면 인공 임신증절을 하는 것은 큰 죄라고 했는데 현시대에 서 이에 대한 스님의 고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스님: 사람이 좁게 생각하면 한없이 죄가 되고요, 넓게 생각하면 죄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태어난 사람을 이미 때리고 했다면 거기에 태어나도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한번 생각 해봤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욕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그럴 바에는 얼른 웃을 벗고선 좋은 데로 천가가 됐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를 배워야 고생할 사람은 고생을 덜 하게 해주고, 또 태아가 잘못돼서 불구로 나온다 이럴 때는 빨리 천도해서 다시 좋은 결과를 보게 하는 것이 무명을 짓고 다시 나오게끔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한 사람에게서 죄가 붙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또 살려준 자제도 없고 죄 될 자제도 없고 이렇지만은 그런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즉 무의 세계인 정신세계의 50%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도리를 충분히 알아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자2: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림 · 최주현

자기 아닌 자기가 경 아닌 경을 볼 수 있어야

현행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스님: 현행에 대해서도 뭐 꼬집어서 말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피가 너무 많은 사람, 스스로 피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현행을 해도 좋고, 또 생산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현행을 해서서는 아니 되고 그런 거죠. 또 현행을 해가지고 남까지 괜히 고생시킬 그런 피라면 안 하는 게 좋고. (대중 웃음) 하하하.

▲질문자2: 알겠습니다.

▲질문자3: (편지 봉투를 스님께 올리면서) 합격증 가져왔습니다.

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스님께 좀 몸을 매달리고 말기러 왔죠. 그래서 왔습니다.

▲스님: 나한테 매달리지는 마세요. 내 모습한테 매달리진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을 끌고 다니는 당신 주인공만이 당신을 고칠 수가 있어요. 당신의 몸뚱이니까.

▲질문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나쁜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달리다가 찾아 왔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마음이 죽지 마시고요, 그건 이름일 뿐이다 하시고 '나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만이 나를 건강하게, 내 몸을 건강하게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만 갖

다스러서 한군데 놓고 가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공부

▲스님: 네? ▲질문자3: 합격증 가져왔습니다.

▲스님: 합격증이었어?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3: 지난번에 스님 친견하고부터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됐는데요, 안양까지 저는 전기 가살을 많이 해봤는데 전류가 제대로 흐르는 지 좀 한번 점검해주세요. (대중 웃음)

▲스님: 하하하, 전력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거를 의심치 마세요.

▲질문자3: 예.

▲스님: 어디고, 어디고! 전력은, 즉 광력은 레이저 광선은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멀고 가까움이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심치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질문자3: 네, 감사합니다. ▲스님: 또 질문할 사항 있어요?

는다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괜찮죠. 그럼, 또 없습니까?

▲사회자: 원하는 대로 질문을 다 받으시면 한 달이 가도 다 못할 테니까 오늘은 이걸로 마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스님: (질문을 하기 위해 걸어나오는 다음 질문자를 가리키시며) 저기 나오시는 분, 아, 나오시다 들어가면 민망스럽잖아요?

▲질문자5: 저는 체험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집에 제 손자가 살고 있습니다. 외손자인데, 며칠 전에 딸내미가 밤중에 전화를 해서는 애가 자꾸 울고 전혀 잠잘 생각을 안 하니 어떡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럼 내 갈게." 이렇게 말하고 웃을 입고 갔더니 전화를 놓자마자 잠을 자더라고요. 그때 거기에서 제가 한참 이야기를 좀 해줬

▲질문자4: 스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중생입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왔습니다. 그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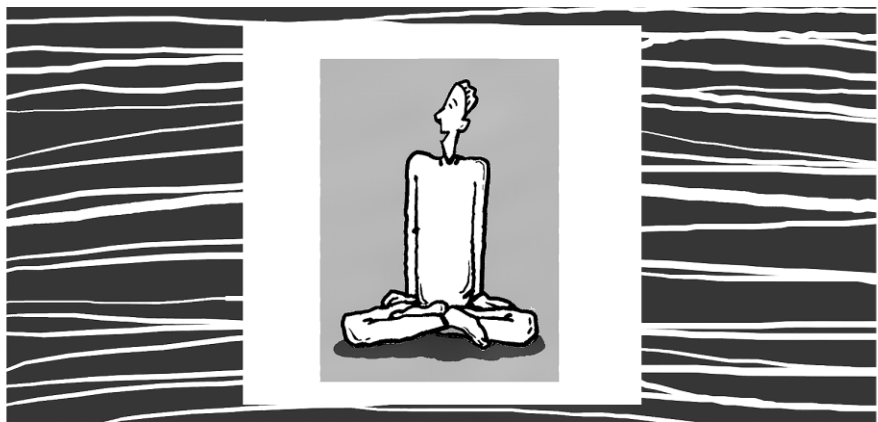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